
2015 터키 주최 G20의제 논의
T20 회의 참석 출장보고서

2015. 3

규 제 연 구 센 터

KDI 한국개발연구원

목차

1. 추진배경-----	2
2. 출장개요-----	4
3. 출장일정-----	5
4. 출장 주요 내용 정리 - T20 Meeting-----	6
Session1: Challenges of Global Governance -----	6
Session2: Macroeconomic & Financial Cooperation -----	7
Session3: Trade & Investment -----	8
Session4: Infrastructure -----	11
Session5: Development Agenda -----	13
Session6: Technology & Innovation -----	15
T20 role and contribution to global governance agenda -----	17

1 추진 배경

- Think20는 G20 회원국 내 주요 정책연구기관(think tank)을 연계하는 국제 협력네트워크로서 G20정상회의 의제 수립 과정에서 의장국에 심도 있는 정책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
 -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KDI, 미국의 Brookings, 캐나다의 CIGI(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) 등이 협력하여 그 해 4월 (워싱턴)과 9월(서울) 세르파팀을 자문하고 전문가 세미나와 국제회의를 개최
 - * 이를 바탕으로 G20내 정책연구기관 간의 연대를 제도화하는 방향 모색
 - 2012년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멕시코가 그 해 2월 G20 회원국의 대표적 정책연구소들을 초청하여 자문을 구한 것을 계기로 Think20 공식 출범
 - * G20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책연구기관 간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권고하는 식으로 추진
 - * 첫 Think20 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는 멕시코 세르파팀에 전달되어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 반영되는 등 Think20회의는 지식 공유와 외연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
 - 201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준비를 목적으로 러시아에서는 2012년 12월 Think20 회의 개최
 - 2014년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오스트레일리아는 의제 발굴을 위해 2013년 12월 Think20 회의 개최

- KDI는 Think20의 창립 멤버로서 Think20 네트워크 제도화를 위해 노력
 -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전문가 세미나와 국제회의 결과에 기초하여 KDI-Brookings 공동으로 단행본* 발간
 - * Colin Bradford and Wonhyuk Lim, eds., *Global Leadership in Transition: Making the G20 More Effective and Responsive* (2011)
 - 2011년 이후 KDI-CIGI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Global Governance Gaps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
 - 2013년 5월 아시아지역의 Think20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Lowy Institute 및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(ADB) 공동으로 전문가 세미나 개최

- 2014년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(11.15~16)를 앞두고 의장국인 오스트레일리아는 G20 정상회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일반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
 -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Lowy Institute에서 G20 회원국의 대표적 정책연구소들을 초청하여 2014년 9월 Think20 세미나와 공개 포럼을 개최할 계획

2

출장 개요

○ 목적

1) "TEPAV-CIGI joint Think 20 Turkey Launch Event" 참석

○ 일정: 2015. 02. 09(월) ~ 13(금), 출·입국일 포함

○ 방문지: 터키 이스탄불

○ 출장자 (총2명):

소속	성명	직위	출장기간
KDI	임원혁	규제연구센터 소장	2015.2.9.~13
	장세연	규제연구센터 소장실 연구원 연구원	2015.2.9.~13

3	출장일정
----------	-------------

일자	시간	주요일정	비고
2.9(월)	14:25	인천출발(임원혁, 장세연)	KE955
2.9(월)	19:30	터키 이스탄불 도착	
	21:00	호텔 체크인	Hilton Garden Inn
2.10(화)	07:30~09:00	Breakfast with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	Bosphorous University Library
	10:00~12:30	Think 20 session 1 & 2	
	12:30~13:30	오찬	
	13:30~19:00	Think 20 session 3 & 4 & 5 & 6	
	20:00~22:00	만찬	
2.11(수)	10:00~13:00	Think 20 Conference	Istanbul Chamber of Commerce (ITO)
	13:00~14:30	오찬	
	14:30~18:00	Think 20 Workshop	
	19:00~21:00	Think 20 참석자들과의 간담회	
2.12(목)	20:45	이스탄불 출발 (임원혁, 장세연)	KE956
2.13(금)	13:45	인천도착	

I. 글로벌 거버넌스와 거시경제 협력에 대한 도전과제들

- 과거에 G20은 경제대공황으로부터 세계 경제를 구출 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난무하며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소들이 존재함
- 이 자리에서 현재와 미래의 거시 경제적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이번 연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협조적이고 잘 계획된 거시 경제적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
 - 이를 위해선 아직 경기회복을 하지 못한 몇 개 국가들의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현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, 글로벌 경제에 미칠 낮춰진 유가 가격 및 위축된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성장속도로 인한 경제 불안정에 대해 논의해야 함
- G20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로는 의제 설정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존재함
 - 의제 설정과 관련된 문제점은 무역이나 기후변화 또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G20의 떨어지는 관심을 지적
 -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G20 자체의 정당성 ‘legitimacy’ 문제와 논의된 사항들을 G20 정상들이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
- G20의 떨어지고 있는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음

- 그러기 위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을 먼저 해결해야함
- 전 세계적으로 썩크탱크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의제들도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제들을 먼저 정하여 우선순위를 세워야 함
- G20 이슈들에 대해 홍보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개선시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함
- G20을 구성하고 있는 리더들 중에는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도 많으나 정치가들이 많기 때문에 G20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들과 실제 시민들과의 연관성이 떨어짐

II. 거시경제 & 금융 분야의 협력

- 2008년 11월 워싱턴 디씨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로 정상들을 비롯하여 재무부 장관들, 중앙은행 및 금융 규제자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된 의제들을 제안해왔음
- 이 자리에서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짚어 넘어가고 G20이 집중해야 하는 정책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
 - 비은행권 신용대출로 인한 리스크, 주요 금융 기관의 회복력 및 개발도상국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금융 및 규제 리스크들이 논의 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들임

- 2009년 피츠버그에서 strong,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를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세 가지 다 지켜지지 않고 있음
 - 전 G20 정상회담 호스트였던 호주처럼 수치화된 경제성장 2%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등 약속을 지켜야만 G20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음

- 올해 G20 정상회담 주최국인 터키가 ‘strong,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’에 추가한 ‘inclusive’ 용어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
 - 예를 들어 ‘직장에서의 여성 비율을 20%에서 25%로 증가’ 등의 식으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

- 시민들에게 목표에 대하여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선 작은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함
 - 그렇지 않을시 시민들에게 G20이 정치가들의 모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
 - 새로운 목표들을 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키겠다고 약속한 의제들부터 해결해 나가야 함

- 공공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정부들은 재정정책을 펼칠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공공부채만 볼 것이 아니라 인프라 부채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함

III. 무역 및 투자

- G20 국가들은 전세계 무역 물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해외직접투자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G20에서 무역과 투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

중요한 의제임

- 2008년 국제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G20 국가들의 리더들은 국제 무역을 저지시키는 장애물 등 관세들을 없애 계속해서 무역시장을 오픈하는데 노력을 하였음
 - 정상들은 2012년 Los Cabos Summit에서 이러한 ‘standstill agreement’의 기간을 2013년에서 2014년까지로 확대함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WTO 레포트에 따르면 2008년 이후에도 G20국가들이 무역에 대한 제한을 계속해서 둔 것으로 보임

- 증가하는 특혜무역협정(Preferential Trade Agreements)의 숫자는 무역의 다자체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
 - 아시아의 Trans-Pacific Partnership (TPP)와 EU와 미국 간의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(TTIP)가 그 중 하나임
 - 이번 토론에서는 PTA가 다자무역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어떻게 국제무역에 무역파트너를 통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음
 - 또한, PTA가 글로벌 벨류 체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

- 무역의 성격과 무역에 관련된 규율들의 성격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변하지 않았음
 - 20세기에는 전통적인 물품에 대한 무역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에 따른 기본적인 규율들만이 요구되었음

-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에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제조업이 국제적으로 분할되어 이루어지게 됨
-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흐름이 퍼지게 됨에 따라 그 흐름을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기존의 물품에 대한 간단한 규율들은 적용하기 어려워짐
- WTO는 제품들 간의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21세기의 무역 체계에는 맞지 않음

□ 그렇다면 WTO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?

- WTO는 3분의 2의 WTO 멤버들의 과반수가 동의 할 시 어떠한 양자협약도 인정해주어야 함
- MFN waiver 또한 3분의 2의 WTO 멤버들의 과반수가 동의 할 시 인정해주어야 함
- 또한, WT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분쟁조정 시스템도 양자협약들도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

□ 지역무역협정 (Regional Trade Agreements)이 증가하는 이유는 RTA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빠른 결과물을 원하는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임

□ WTO와 같은 국제기구 위치에서 FTA와 RTA에 대한 글로벌한 표준기준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

- EU-Korea FTA가 5년이 걸렸고 US-Korea FTA가 약 7년이 걸리는 등 FTA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

- 양자협약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들을 만드는 새로운 의제가 필요함
- WTO가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대한 범위설정이 필요함
 - 현재 해외 노동 시장 및 통화 과대/과소평가에 대해서도 WTO에 책임을 묻는데 이는 잘못된 것
- 이론과는 다르게 무역이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정책들도 매우 중요함

IV. 인프라

- 평소에 인프라는 개발 또는 투자와 연관되어 많이 논의가 되나 인프라 자체로만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spillover 효과가 큰 부분임
 - 호주가 지난 G20 정상회담을 주최하면서 중요시했던 인프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함
- G20은 공-사 인프라 투자사업을 지지하는 것과 공공 인프라 은행과 사기업의 장기 자금 및 신용자본 사이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함
- 인프라를 투자 품목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특히 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입장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적은 리스크의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음
 - 중국 및 몇 개발도상국의 성장 뒤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들이 있었음

- 이처럼 인프라가 세계 경제 성장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음
-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비율을 높여서 다자개발은행들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해야 함
-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를 묶어서 프로젝트 묶음에 분산투자 할 수 있게 해야 함

□ 인프라 투자자본 파이낸싱 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

- 아시아 개발은행 등 지역 인프라 투자자본 파이낸싱 기관들은 투기성 사업을 경계하되 인프라 투자에 대해 오픈된 마인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

□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실제로 인프라에 투자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매년 그 차이가 커지고 있음

□ 일 년에 약 9조 달러가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는데 이는 2013년의 13-15조 달러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존재하나 이 차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부터 발생함

-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파이낸싱 방법을 이용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 참여율을 높여야 함
- 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 같은 경우 정교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정부들 간에 best practice 를 하는 것이 중요함
- 또한, 월드뱅크를 비롯한 개발은행들의 지원이 필요함

V. 개발 의제

- 터키는 이번 G20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동안 G20을 ‘inclusive’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서 개발을 중요한 의제로 삼는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줌
 - 터키는 G20 정상회담이 G20 회원국이 아닌 저소득층 멤버들에게 좀 더 의미가 있도록 G20과의 연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
-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개발원조금 및 투자금의 원천이 필요함
 - 투자 증대 프로젝트와 같은 인프라 투자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로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 - 로컬 경제들은 경제적, 법적 및 환경 친화적인 안정적인 정책들과 고용 안정성을 필요로 함

- 이 토론에서는 개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고 추후의 개발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개발도상국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논하겠음
 - 무역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 주요 드라이버 역할만 될 뿐 아니라 개발을 도모하는데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음

- G20은 특히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아프리카 국가들 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
 - 더 이상 세계 경제를 논할 때 아프리카를 빼고 논의할 수 없음
 - 몇 년 동안 가나 및 우간다 등 매 해 두 자리 수로 경제 성장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음

- 최근에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요구됨
 - 남아프리카공화국이 G20 회원국이긴 하나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대표하지 못함
 - 아프리카 연합, 아프리카 개발 은행 등 아프리카 국제기구가 정상회담에 참관인으로 초대를 받기는 하지만 이는 G20에서 펼칠 수 있는 아프리카의 역량을 제한시킴
- 아프리카와 G20이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이슈에 대해 협업함으로써 협력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음
- 아프리카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매 년 수 억 달러의 수익들을 합법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 옮기고 있음
 - 이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국내 자금들을 동원하여 국가 개발하는데 이용할지 고민하고 있음
 - G20이 이미 다국적기업들의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하여 initiative를 취하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과 훌륭한 협업 파트너가 될 것임
 - G20 회원국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보와 지식 공유를 함께하고 기술적 도움 및 정책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임
 -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G20과의 연관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다국적 기업의 profit shifting 및 세금 회피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됨

- 아프리카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G20 정상회담에서 발제할 수 있는 인사로는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 Donald Kaberuka총재와 Celtel 창업자인 Mo Ibrahim 이사장 및 Festus Mogae 전임 보츠와나 대통령이 있음
- G20은 문제해결, 의제 설정 외에도 국제기구를 개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
 - 장기적으로 T20이 해야 할 일은 G20을 포함한 국제 기구들에 어떤 조직구조가 효과적인지 고민 해보는 것
-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국제원조금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구체적이고 선입증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
 - 녹색 기후 펀드라는 방대한 계획에 대하여 원조금을 요청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계획안이 필요함

VI. 기술 및 혁신

- 오늘날에 기술 및 혁신은 경제성장과 경쟁력 및 경제 전환의 주요 성장 동력임
 - 특히 고속 성장해왔던 중국, 인도 및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강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써 기술과 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음
- 이 토론에서는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증진시키는 정책에 대해 논의해보고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놀로지, 나노테크놀로지 및 ICT 플랫폼에 대한 정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토의하겠음

-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법적, 경제적 이슈들 논의도 이루어져야함
 - 거의 모든 나라 시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인터넷 보안문제들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
 - 나라들 마다 개인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 기준이 다름
 - 기술 혁신적 제품들은 제품통일화를 시켜 여러 나라에서 혼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

- G20은 보통 긴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에 집중 하는데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는 변화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기술 혁신임
 - ‘investment’: G20은 장기적 투자로써 미래 기술과 혁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R&D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함
 - ‘implementation’: 새로운 기술, 안전 및 정보공유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함
 - 서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후 변화 문제를 더 빨리 해결 할 수도 있음
 - ‘inclusiveness’: 다른 국가 및 시민들과 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기술 및 혁신로 인한 혜택을 나눠야 함
 - T20이 관련된 커뮤니티를 초대하여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점 및 필요한 정책변화가 무엇인지 고민을 들어주고 G20 정상들에게 정책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

V. T20가 G20 글로벌 거버넌스 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점

- G20은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의 시장 붕괴를 피하고자 구성되었음

- G20의 주요 강점은 그 그룹의 정당성과 정책입안자들의 집행력임

- G20은 제도화되어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코디네이션 노력이 필요함

- Think 20의 역할과 제도화의 가능성
 - 현재로서는 비공식적 네트워크이며 오픈된 조직이고 어떠한 멤버십도 요구되지 않고 있음
 -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네트워킹과 기관들 간의 연락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함
 - T20 미팅 후에 다음 번 모임까지 팔로잉 연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계적인 연구가 되지 않고 있음
 - 영구적인 사무국을 세우는 것 대신 기존에 G20에 풍부한 연구경력이 있는 CIGI, Lowy Institute, KDI, Brookings 가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지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향이 나올 수 있음